

골리앗의 무기 이야기 (6) 합성궁으로 전차의 파괴력을 높인 악카드인의 전차 : 네이버 블로그

m.blog.naver.com/PostView.naver

골리앗의 전쟁사

골리앗의 무기 이야기 (6) 합성궁으로 전차의 파괴력을 높인 악카드인의 전차



POWER b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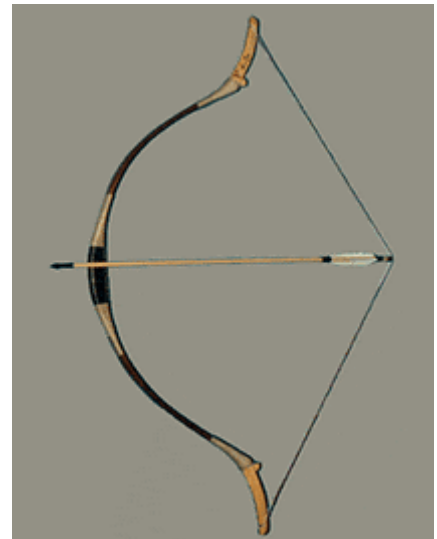
골리앗

2007. 8. 25. 13:32

앞서 전차이야기를 하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전차를 논할때 '합성궁'을 빼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합성궁은 BC 235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정복한 악카드인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본래 활은 약 12000년전에 앞서 이미 소개한 아틀아틀, 투석기와 함께 등장했지만 두 무기에 비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고대 문명권에서는 주로 사냥용으로 썼을뿐 실제 전력으로 이용하는 예는 드물었습니다. 이런 활을 지금의 이란에 위치한 자그로스 산맥 너머의 유목민들이 활 몸체 양끝을 뿔을 이용해 강화하는 기술을 개발해내자 활은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사용된 앗시리아인의 활을 복원한 모습. 악카드인의 활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

수메르의 도시들을 정복한 악카드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합성궁을 전차와 함께 이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차는 수메르인의 것과는 달리 두개의 바퀴를 달고 있었으며, 바퀴의 몸체는 여섯개의 바퀴살로 지탱하고 있어 수메르인의 통나무바퀴보다 가벼웠고 빨랐습니다. 악카드인의 전차에는 두명의 병사가 탑승했는데, 하나는 방패를 든 운전수와, 또 하나는 궁수였습니다. 운전수의 역할은 전차를 모는 동시에 방패를 이용해 궁수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궁수는 활을 쏘거나 근접전에서 칼을 뽑아 적을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야지대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차만큼 최적의 장비도 드물었고, 전차는 이후 기원전후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기원전 17세기 히타이트인의 전차 모습. 악카드인의 전차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전차 제작기술은 기원전 16세기에 들어 이집트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 거주하던 다민족 집단인 히소스인들은 - 이 집단에는 유태인, 아랍인 등이 주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 전차를 가지고 이집트를 침략해 이집트 중왕국시대를 마무리시키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창과 방패를 든 보병과 궁수에만 의지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히소스인에게 패하여 하이집트를 내어주게 되자, 이집트인들은 히소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전차기술을 받아들여 새로운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이후 이집트 제 18왕조를 연 해방왕 '아흐모세' (제위: BC 1570 ~ BC1546)는 히소스왕 아페피와 30여년간의 전쟁을 벌여 히소스인을 이집트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하는데, 그는 히소스인과 똑같이 전차를 이용해 그들을 몰아냅니다. 아흐모세 이후, 신왕국시대의 파라오들은 전차를 집중적으로 양성했고 이집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근동 최대의 전차생산국 및 전차강국이 됩니다. - 성경에서는 솔로몬왕 시대 이스라엘에 '병거청'이라는 관청이 있어 전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는데, 전차를 이집트에서 수입해 왔다고 기록합니다. - 전차는 고대 그리스에도 전래되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는 전차를 타고 이리저리 전장을 왔다갔다 하는 영웅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그리스의 전차는 전투용이라기 보다는 장군들의 의전용, 혹은 병력수송목적으로 쓰인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를 히소스인으로부터 해방한 파라오 아흐모세의 미라와 이집트 제 18왕조 파라오인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전차의 모습. 이집트의 전차는 악카드인의 전차에 비해 훨씬 더 가볍게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무게도 두 손으로 들어올릴 수 있을만큼 가볍다.



고대 중국의 전차, 춘추시대 (BC 7세기)의 것으로, 근동 지방의 전차와는 달리 엄청나게 큰 바퀴를 가진 차체에 운전수, 궁수, 창수 세명이 타고 있는 구조이다. 궁수는 합성궁을 사용하고 있는데, BC 16세기경 중앙아시아로부터 중국에 전차가 전래되면서 함께 합성궁도 전해진 것으로 추측한다.



전차는 고대 문명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전차는 바퀴를 사용한 무기이므로 거칠고 험난한 지형에서는 전복되기 쉬웠고, 또한 지나치게 많은 말이 소모되고, 전차의 제작비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에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말이 개량되면서 점점 더 크고, 사람이 등위에 올라타도 견딜 수 있을만큼 튼튼한 말이 생산되자 전차는 차츰 전장에서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전차의 원류지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는 전차에 금속장갑을 입히거나 차축에 낫을 달아 돌격목적으로 전차가 사용되기

도 했지만, 그나마도 기원전후에 이르면 기병에 밀려나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합성궁은 날이 갈 수록 점점 개량되어나갔고, 등자가 없어서 균형을 잃기 쉬웠던 초기 기병들에게 보급되어 이번에는 기마궁술로써 새로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기원전 7세기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앗시리아 제국기병의 모습. 초창기 기병으로 등자가 없는 말을 타고 있으며, 합성궁을 들고 있다.

-글: 골리앗-

- #전쟁사
- #역사

파워 블로그

골리앗

터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터키 유학중 (사회학 석사과정), 터키어 프리랜서 번역, 통역사, 터키어 강사. 터키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활동중입니다. :) E-mail:

Polyonomata@gmail.com